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김아람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목표• 주요 학습지점•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38
05	강의 전문(국문)	44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다양한 역사적 주제를 구술사로 조망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장면을 체감하고 역사가 과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술사 연구의 방법론을 익히고, 실제로 연구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학습지점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가 중요하게 활용되었던 주제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본다.
역사적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지는 가치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한국현대사에서 실제 구술사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직접 구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의는 총 11주차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10주 동안 진행된다. 각 주의 강의는 주제별로 5~6개(차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별로 학습자가 해당 주차의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퀴즈 혹은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읽기자료 등 비영상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매주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활동을 마쳐야 한주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 주차에는 강좌 전체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구술을 진행해 결과물을 제출한다.



01	구술사란 무엇일까	1	구술사의 개념
		2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4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5	과제 안내 및 정리
02	한국 구술사 연구의 흐름	1	한국현대사의 흐름(1) 해방~4.19혁명
		2	한국현대사의 흐름(2) 박정희 정권 시기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	한국현대사의 흐름(3)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
		4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술사의 시작
		5	2000년대 이후 구술사 연구 및 사업의 확장
03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1	제주도의 아픔과 강요된 침묵
		2	제주4.3 규명과 구술의 의미
		3	5.18 광주의 고립과 숨겨진 기억
		4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쟁점과 책임
		5	특별법 제정의 의미
04	분단과 한국전쟁 체험	1	한국전쟁의 주요 국면과 결과
		2	폭격과 학살의 비극
		3	군인이 된 사람들
		4	기지촌 형성과 여성의 이야기
		5	'혼혈' 아동을 내보낸 한국
		6	고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05	한국전쟁 전후 피난과 정착	1	피난 시기와 규모
		2	피난 경로와 임시 생활
		3	북한으로부터의 피난길
		4	난민정착사업의 실시
		5	농지 조성 노력과 정착
06	1960~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1	'개척단' 조직과 운영
		2	'개척단'의 합동 결혼
		3	'개척단'의 농지 분배와 이주/정착
		4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
		5	납북귀한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
		6	납북귀한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연좌제'
07	1980년대 사북항쟁과 여성 수용	1	사북항쟁의 전개와 배경
		2	사북항쟁의 피해 양상
		3	여성의 경험과 항쟁 이후의 사북
		4	여성 수용시설의 배경과 수용 방식
		5	여성 수용시설의 인권침해와 탈출 시도
		6	1960~80년대 구술로 본 현대사의 쟁점



08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1	사회적 참가자가 된 세월호
		2	진도의 혼란 상황
		3	유가족의 슬픔
		4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
		5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6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09	구술 준비 과정	1	구술자 선정
		2	사전 면담의 필요성과 방법
		3	장소 섭외와 질문지 작성
		4	질문지 예시
		5	준비물과 역할분담
10	구술사 연구방법론과 총정리	1	질문하는 방법
		2	공감과 집중
		3	면담일지 작성하기
		4	녹취문 작성하기
		5	구술 활용 사례
		6	강좌 정리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김 아 람



강의 교안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김 아 람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구술사의 개념

-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구술사에 대한 정의

02.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 구술사의 목적
-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와 의미

03.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 구술의 특징과 의의

04.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05. 과제 안내 및 정리

- 최종 과제
- 마무리

1주차 | 학습목표



- 구술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 현대사’ 강좌의 목표와 구성에 대해 이해한다.

1주차 |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1주차 | 학습목표 1차시. 구술사의 개념



학습목차

- 학습목표**
 - 세계적으로 구술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류할 수 있다.
 - 구술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구술사에 대한 정의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미국
 -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온 이주민과 원주민들의 구술자료 수집
 - 1920년대 시카고 대학 도시사회학 연구의 참여관찰과 인터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미국

- 1934년 Allen Nevins 처음으로 '구술사' (oral history) 용어 사용



Allen Nevins

[출처01] Google Arts & Culture(©글로벌한국학연구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 중국 - 1950년대 태평천국운동 조사,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연구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1차시 구술사란 무엇일까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 대만 - 1950년대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가 학문적으로 시작



[출처02]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1차시 구술사란 무엇일까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 일본 - 1960년대 논픽션 작가 시작,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오키나와 연구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1차시 구술사란 무엇일까



유럽

- Jan Vansina - 벨기에 역사학자 1950년대 구전자료 수집



Jan Vansina

[출처03]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1차시 구술사란 무엇일까



유럽

- 영국 - 1960년대 노동사 연구
- 독일, 프랑스 - 1970~1980년대부터 시작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구술사에 대한 정의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유럽

- 이탈리아 - Antonio Gramsci의 영향
- 1970년대부터 연구 발전



Antonio Gramsci

[출처04] Wikipedia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구술사의 개념 정의

- Louis Starr (미국)
-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



Louis Starr

[출처05] Wikimedia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구술사의 개념 정의

- Donald Ritchie (미국)
-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



Donald Ritchie

[출처06] Wikipedia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구술사의 개념 정의

- Paul Thompson (영국)
- “사람들 주위에 세워진 역사”



Paul Thompson

[출처07] University of Sussex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구술사의 개념 정의

- Alessandro Portelli (이탈리아)
- “구술을 표현의 매개로 하는 과거에 대한 서술”



Alessandro Portelli

[출처08] 한국구술사학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구술사의 개념 정의



한국구술사학회 10주년 학술대회 (2019)

[출처08] 한국구술사학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

- 윤택림 (역사인류학자)
-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의 대화를 통해서 쓰인 역사”



역사인류학자
윤택림

[출처08] 한국구술사학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

- 김귀옥 (사회학자)
- “구술자의 기억이 연구자와의 구술 과정을 통해 이야기되고 문자화되면서 역사적 자료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것”



사회학자
김귀옥

[출처08] 한국구술사학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

- 허영란 (역사학자)
-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을 역사화하기 위한 기획”



역사학자
허영란

[출처08] 한국구술사학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1차시 구술사의 개념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

- 이용기 (역사학자)
- “구술(자료)을 통해 쓰인 역사”



역사학자
이용기

[출처09] © 김아람

SOURCES



[출처01] Google Arts & Culture (©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출처02] Sinica

<https://www.mh.sinica.edu.tw/index.aspx>

[출처03]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ttps://jarvansinafrica.wisc.edu/about-jar/>

[출처04] Wikimedia

https://en.wikipedia.org/wiki/Antonio_Gramsci#/media/File:Gramsci.png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구술사의 개념

-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구술사에 대한 정의

02.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 구술사의 목적
-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와 의미

03.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 구술의 특징과 의의

04.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05. 과제 안내 및 정리

- 최종 과제
- 마무리

학습내용

1주차 | 구술사란 무엇일까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1주차 | 학습목표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학습목차

학습목표

- 역사 연구에서 구술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구술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내용

- 구술사의 목적
-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의 의미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구술사의 목적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구술사를 왜 할까?

- 문자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사회적 약자)의 기억을 기록하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구술사를 왜 할까?

-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구술사를 왜 할까?

- 지배층, 엘리트, 수도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구술사를 왜 할까?

-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결하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와 의미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말하기의 효과

- 구술자: 말하는 사람
- 면담자: 듣고 질문하는 사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말하기의 효과

- 억울함, 한(限), 슬픔의 표출
→ 후련함, 보람 등 긍정적인 감정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말하기의 효과

- 대화의 즐거움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말하기의 효과

- 고통의 기억 환기 → 심리적 트라우마의 반복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듣기의 의미

- 타인의 삶, 감정, 의식을 알게 됨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듣기의 의미

-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계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듣기의 의미

-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형성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듣기의 의미

- 역사를 다시 서술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2차시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듣기의 의미

-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에 도움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 01. 구술사의 개념
 -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구술사에 대한 정의
- 02.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 구술사의 목적
 -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와 의미
- 03.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 구술의 특징과 의의
- 04.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 05. 과제 안내 및 정리
 - 최종 과제
 - 마무리

1주차 | 구술사란 무엇일까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1주차 | 학습목표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학습목차

학습목표

- 구술, 증언, 인터뷰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술이 가진 특징을 알고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 구술의 특징과 의의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증언이란?

-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하기
-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 사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함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인터뷰란?



인터뷰 보도화면

[출처] G1방송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인터뷰란?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
 - 이야기를 나누는 일 → 구술의 의미와 동일함
-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과 가지는 회견
 -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의 특징과 의의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의 특징

- 口述: 입으로 말함
- 방식은 인터뷰와 같음
- 주제 중심의 구술
 -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경험 위주로 질문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의 특징

- 생애사 연구
 - 어린 시절 기억부터 최근까지의 경험
 - 장시간이 필요함
 - 생애 속에 특정 주제를 포함함
 - 구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술의 중심이 될 수 있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의 특징

- <https://mkoha.aks.ac.kr/>



한국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홈페이지
<https://mkoha.aks.ac.kr/>

[출처02]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구술성 (Orality)
 - 문어(文語)와 다른 구어(口語)
 - 구술 상황에 영향을 받음
 - 언어적 행위가 정보를 담고 있고 비언어적 행위도 포함됨
 -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구술성 (Orality)
 -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가 중요
 - 녹취문은 재현에 한계가 있음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주관성과 개인성
 - 사료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이 없는가?
 - 주관성은 한계인가?
 - 역사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서술성 (Narrativity)
 - 구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
 -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 어떤 방식, 플롯, 말씨를 사용하는가
 -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는가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서술성 (Narrativity)
 - 연대기적 서술과 에피소드적 서술
 - 성별과 직업별 차이
 - 다변형과 과묵형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공동작업
 - 연구자(면담자, 해석자)와 연구 참여자(구술자)의 상호작용
 - 연구자가 중립적일 수 없으므로 계급, 젠더, 문화, 학문적 지향성 등 연구자의 시각을 고려하고 인식해야 함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공동작업
 - 구술은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구술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해석함
 - 구술자는 구술의 주체이자 해석자
 - 구술사 연구는 면담자와 구술자가 공동 저자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3차시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구술 자료의 특징과 질문들

- 신뢰성
 - 기억이 가지는 한계 고려
 - 문헌자료는 신뢰도가 높고, 구술자료는 그렇지 않은가?
 - 구술자료가 가진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

SOURCES

- [출처01] G1방송
http://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276198
- [출처02]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https://mkoha.aks.ac.kr/oralRecord/OralRecordSelect.do?oralRecSeq=1701&subjCode=00008>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구술사의 개념

-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구술사에 대한 정의

02.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 구술사의 목적
-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와 의미

03.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 구술의 특징과 의의

04.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05. 과제 안내 및 정리

- 최종 과제
- 마무리

학습내용

1주차 | 구술사란 무엇일까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1주차 | 학습목표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학습목차

학습목표

- 강좌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지 전망할 수 있다
- 강좌에서 다루는 현대사의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고, 미리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학습내용

-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강좌의 구성

- 2주 한국의 구술사 연구 흐름
- 3주~8주 강사가 구술사로 진행한 현대사연구의 주제들
- 9~10주 구술사 연구 방법론
- 11주 직접 구술 진행해보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995. 12. 21.] [법률 제5029호, 1995. 12. 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한정질서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사례

- 5·18 민주화 운동

[출처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0. 4. 13] [법률 제6117호 2000. 1. 1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법적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사례

- 제주 4·3사건

[출처0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한국전쟁(1950~1953년)의 피해와 난민 정착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본 연구에서는 월남민 구술기록 축적을 통해 이들의 월남 동거의 공간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둘러싼 생애사를 조형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기원하는 미래 담론을 개구성하는 토대요소를 제공한다.

자료보기	검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남민 생애 월 지역 월 직업 월 경기도 월 월남 월 월남 월 월남 월 월남 월 월남 월 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남민 생애구술자료 구술자 직업 지역 자료 구술기록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사이트

[출처03]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인권침해(1960~1970년대)

- “1천7백 명 짓밟은 ‘인간개조’ ... ‘원조’ 삼청교육대”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폭력 범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삼청 교육대의 원조로 불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서산개척단’이 있습니다.
- [특집]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필요’

[출처04] MBC 뉴스 [출처05] 강원일보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1980년대 사회 통제

- 노동자, ‘부랑인’, 여성
 - 광부들의 사복항쟁
 -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여성 수용시설 등

1주차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현대사 | 4차시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2014년 세월호 참사



[출처0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아카이브

SOURCES



[출처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0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03]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4-KFR-1230004&callType=dir&dirRsh=&dataID=AKS-2014-KFR-1230004_DES@032

[출처04]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0001_28802.html

[출처05]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11514573992177>

[출처0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아카이브

<https://archive.much.go.kr/data/03/folderView.do?jobdirSeq=1356&idnbr=2019029948>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구술사의 개념

- 세계 각국 구술사의 시작
- 구술사에 대한 정의

02.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 구술사의 목적
- 말하기 및 듣기의 효과와 의미

03.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과 쟁점

- 구술, 증언, 인터뷰 개념과 방법의 차이
- 구술의 특징과 의의

04.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

-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
- 강좌에서 다룰 현대사 연구 주제

05. 과제 안내 및 정리

- 최종 과제
- 마무리

1주차 | 구술사란 무엇일까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학습목차

학습목표

- 연구방법론 강의를 듣고 면담자가 되어 구술을 진행한다.

학습내용

- 최종 과제
- 마무리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최종 과제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최종 과제

- 연구방법론 강의를 듣고 면담자가 되어 구술을 진행한다.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구술자 선정 기준

- 1970년 이전 출생자
- 가족, 지인
- 역사적 사건 관련자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과제 결과물

- 서식 제공 예정
- 녹취록: 구술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여 분(min) 분량
- 면담일지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마무리

1주차 구술사란 무엇일까 | 5차시 과제 안내 및 정리



1주차 마무리

- 구술사의 시작과 정의
-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
- 구술과 구술사의 특징
- 이 강의의 주제들

REFERENCE



윤택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19
 김귀옥, 『구술사 연구 - 방법과 실천』, 한울아카데미, 2014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퀴즈

여러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를 참고하여 구술사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정의해 봅시다.

정답: 기록, 기억, 과거, 경험, 대화, 목소리, 역사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해설: 구술사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창의적인 의미까지 기술할 수 있다.

퀴즈

구술사에서 말하기의 효과와 듣기의 의미를 각각 한 가지씩 써 봅시다.

정답: 말하기의 효과는

- 1) 억울함, 한, 슬픔 등을 표출하여 후련함과 보람을 느낀다
- 2) 대화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 3) 고통의 기억이 환기되어 트라우마가 반복될 수 있다 외에도 기술 가능함.

듣기의 의미는

- 1) 타인의 삶, 감정, 의식을 알게 된다
- 2)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가진다
- 3)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형성한다
- 4) 역사를 새롭게 서술한다

해설: 말하기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듣기의 의미를 소통의 측면과 연구의 측면 등 다각도에서 기술할 수 있다.

퀴즈

다음 중 구술 자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구술자별로 경험을 서술하는 데 차이가 있다.
- ② 기억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③ 구술자와 면담자가 서로 소통하는 상호작용이다.
- ④ 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정답: ②

해설: 구술 자료에 담긴 개인의 경험은 사실적 진실, 서사적 진실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신뢰성을 지닌다.

퀴즈

이 강좌에서 다룰 예정인 주제가 아닌 것은?

- ① 한국전쟁 경험과 피해
- ② 5.18민주화운동과 특별법
- ③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
- ④ 일제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

정답: ④

해설: 일제 식민지 시기는 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현대사의 주제들을 구술사로 다루는 수업이다.

퀴즈

이 강좌의 최종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구술 상황에 대해 면담일지를 작성한다.
- ② 가족이나 지인을 만날 수 있다.
- ③ 20~30대 청년을 구술한다.
- ④ 녹취록을 만든다.

정답: ③

해설: 1970년 이전 출생자를 구술자로 한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052 --> 00:00:54,287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54,287 --> 00:00:59,392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 현대사 강의를 하게 된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3

00:00:59,392 --> 00:01:05,465

저는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한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00:01:05,465 --> 00:01:15,108

이 강좌는 구술사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볼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5

00:01:15,108 --> 00:01:19,212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

00:01:19,212 --> 00:01:26,119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구술사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7

00:01:26,119 --> 00:01:32,225

이번 주의 학습은 먼저 구술사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8

00:01:32,225 --> 00:01:42,168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술사와 구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9

00:01:42,168 --> 00:01:53,980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강좌의 강의를 소개하고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될 현대사의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10

00:01:53,980 --> 00:01:59,519

그럼 구술사의 개념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1

00:01:59,519 --> 00:02:09,963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세계적으로 구술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류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12

00:02:09,963 --> 00:02:17,237

다음으로는 구술사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

00:02:17,237 --> 00:02:26,112

이를 위해서 각 지역과 국가별로 구술사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14

00:02:26,112 --> 00:02:31,718

구술사에 대한 각 연구자들만의 정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15

00:02:31,718 --> 00:02:39,993

이제 구술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 각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6

00:02:39,993 --> 00:02:42,929

먼저 첫 번째로 미국입니다.

17

00:02:42,929 --> 00:02:50,436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온 이주민과 원주민들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8

00:02:50,436 --> 00:02:58,311

이때 구술사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에 대한 것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19

00:02:58,311 --> 00:03:09,889

그 후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 연구에서 참여 관찰과 인터뷰의 방법을 통해서 구술 연구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20

00:03:09,889 --> 00:03:21,734

미국에서는 1934년 알렌 네빈스라고 하는 역사 연구자가 처음으로 구술사, 오럴 히스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1

00:03:21,734 --> 00:03:25,371

말로 역사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22

00:03:25,371 --> 00:03:33,379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23

00:03:33,379 --> 00:03:47,860

중국에서는 1950년대에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 운동 그리고 신해혁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구술 연구가 활용되면서 구술사가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

00:03:47,860 --> 00:03:57,237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들을 찾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구술사 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25

00:03:57,237 --> 00:04:07,513

일본의 경우는 역사 연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에 논픽션 작가로부터 구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6

00:04:07,513 --> 00:04:16,456

작가를 통한 구술의 시작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오키나와를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27

00:04:16,456 --> 00:04:22,695

대만의 경우는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8

00:04:22,695 --> 00:04:33,406

1950년대에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 연구소에서 학문적으로 구술사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

00:04:33,406 --> 00:04:37,777

다음으로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0

00:04:37,777 --> 00:04:48,121

유럽에서는 안 반시나라고 하는 연구자가 1950년대 아프리카의 구전 자료 수집부터 구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31

00:04:48,121 --> 00:04:54,894

얀 반시나는 벨기에 출신의 역사학자이고 2017년에 사망했는데요.

32

00:04:54,894 --> 00:05:01,367

그는 구술 연구는 연구 방법론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

33

00:05:01,367 --> 00:05:11,711

영국에서는 1960년대의 노동사 연구로부터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4

00:05:11,711 --> 00:05:22,622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구술사 연구가 다소 늦는데 문헌 기록의 전통이 깊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5

00:05:22,622 --> 00:05:27,994

이탈리아의 경우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36

00:05:27,994 --> 00:05:33,599

민중을 향한 그의 사회 인식과 분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7

00:05:33,599 --> 00:05:40,173

시기로는 1970년대부터 구술 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8

00:05:43,176 --> 00:05:48,748

다음으로는 구술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9

00:05:48,748 --> 00:05:53,653

연구자들마다 구술사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요.

40

00:05:53,653 --> 00:05:59,025

미국과 유럽, 한국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41

00:05:59,025 --> 00:06:15,575

미국 의학자인 루이스 타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라고 구술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42

00:06:15,575 --> 00:06:30,423

또한 미국의 도날드 리치는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고요.

43

00:06:30,423 --> 00:06:41,200

이러한 미국의 연구자들의 정의에서는 구술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

00:06:41,200 --> 00:06:50,309

한편 영국의 폴 톰슨의 경우 “사람들 주위에 세워진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5

00:06:50,309 --> 00:07:03,389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포르텔리 같은 경우에는 “구술을 표현을 매개로 하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라는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

00:07:03,389 --> 00:07:15,001

미국과 비교해볼 때 유럽 지역에서는 구술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고 서술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47

00:07:15,001 --> 00:07:21,207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48

00:07:21,207 --> 00:07:31,284

한국에서 구술사를 연구하는 한국구술사학회는 2009년에 창립해서 2019년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49

00:07:31,284 --> 00:07:41,093

그 10주년 학술대회에 앞서 본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포르텔리 선생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50

00:07:41,093 --> 00:07:52,071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몇 각자 분야가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51

00:07:52,071 --> 00:08:08,020

먼저 역사 인류학자인 윤택림의 경우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의 대화를 통해서 쓰인 역사라고 정의하였고요.

52

00:08:08,020 --> 00:08:23,402

사회학자인 김귀옥의 경우 “구술자의 기억이 연구자와의 구술 과정을 통해 이야기되고 문자화되면서 역사적 자료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3

00:08:23,402 --> 00:08:32,278

역사학자인 허영란의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을 역사화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54

00:08:32,278 --> 00:08:44,457

역시 역사학자인 이용기의 경우는 “구술 또는 구술 자료를 통해 쓰인 역사”라고 구술사를 정의했습니다.

55

00:08:44,457 --> 00:08:54,333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에서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6

00:08:54,333 --> 00:09:08,381

한국 연구자들의 구술사 정의에서는 과거, 경험, 기억, 자료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

00:09:08,381 --> 00:09:19,058

이번 차시에서는 세계의 각 지역에서 구술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술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58

00:09:19,058 --> 00:09:32,905

다음 차시에서는 왜 구술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구술사가 왜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1,888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21,888 --> 00:00:31,698

첫 번째 주 구술사란 무엇일까 두 번째 시간인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3

00:00:31,698 --> 00:00:45,979

지난 시간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구술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각 연구자들은 구술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4

00:00:45,979 --> 00:00:53,586

이번 시간에는 구술사를 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

00:00:53,586 --> 00:01:10,970

역사 연구에서 구술사가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고요, 구술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00:01:10,970 --> 00:01:28,621

이번 차시의 학습에서는 구술사의 목적 그리고 구술에서 중요한 행위인 말하기와 듣기가 가지는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7

00:01:28,621 --> 00:01:36,529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도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8

00:01:36,529 --> 00:01:40,633

구술사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9

00:01:40,633 --> 00:01:46,139

구술사는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

00:01:46,139 --> 00:01:56,182

우선 이 구술사를 하게 된 목적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문자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11

00:01:56,182 --> 00:02:09,496

흔히 이 기록을 남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글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스스로 기록을 남기기에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됩니다.

12

00:02:09,496 --> 00:02:13,700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죠.

13

00:02:13,700 --> 00:02:29,315

이 사람들의 역사나 과거 경험에 대해서는 문자 기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구술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00:02:29,315 --> 00:02:36,723

다음으로는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5

00:02:36,723 --> 00:02:43,062

역사라고 했을 때에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기술되기 마련인데요.

16

00:02:43,062 --> 00:02:57,310

그 문자 기록이라고 했을 때 기록은 특히 기록을 만들어낸 집단 또는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또는 감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00:02:57,310 --> 00:03:11,224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못 쓰여 있거나 숨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 구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

00:03:11,224 --> 00:03:19,465

다음으로는 지배층과 엘리트, 수도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19

00:03:19,465 --> 00:03:29,242

구술사라고 하는 역사는 이전의 역사와는 다른 시각과 방법의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

00:03:29,242 --> 00:03:44,424

이전의 역사 서술, 기존의 역사에서는 기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또는 정치사회적 변동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지배층이나 엘리트가 주인공이었습니다.

21

00:03:44,424 --> 00:03:51,197

이러한 기록은 수도라고 하는 지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

00:03:51,197 --> 00:03:58,471

하지만 구술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어디에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3

00:03:58,471 --> 00:04:15,054

구술 기록을 통한 역사 쓰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역사 서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지역 단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

00:04:15,054 --> 00:04:25,965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25

00:04:25,965 --> 00:04:34,574

특히 현대사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거나 사건의 진모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26

00:04:34,574 --> 00:04:42,081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가 중요한 구술 연구의 주제입니다.

27

00:04:42,081 --> 00:04:56,162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신의 기억을 말함으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28

00:04:56,162 --> 00:05:01,567

이 외에도 구술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29

00:05:01,567 --> 00:05:12,412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역시도 자신이 경험해왔던 역사 또는 배워왔던 역사와 달리 이 구술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30

00:05:12,412 --> 00:05:23,089

자신에게는 구술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1

00:05:26,092 --> 00:05:36,803

다음으로 구술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 말하기와 듣기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

00:05:36,803 --> 00:05:44,077

구술에서는 말하는 사람이자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이를 구술자라고 말합니다.

33

00:05:44,077 --> 00:05:51,050

그리고 구술자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는 사람을 면담자라고 합니다.

34

00:05:51,050 --> 00:05:55,355

연구자는 면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5

00:05:55,355 --> 00:06:04,731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 구술자와 면담자라고 칭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36

00:06:04,731 --> 00:06:16,376

그렇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인 구술자가 그 말하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7

00:06:16,376 --> 00:06:25,284

구술자들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8

00:06:25,284 --> 00:06:32,725

이들의 감정 속에는 화도 있고 한이라고 하는 감정과 슬픔이 있습니다.

39

00:06:32,725 --> 00:06:42,468

구술 과정의 말하기를 통해서 이러한 억울함이나 화, 슬픈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40

00:06:42,468 --> 00:06:53,780

후련한 감정 또는 자신이 말하지 못했던 경험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람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41

00:06:53,780 --> 00:07:04,123

다음으로 보통 구술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역사의 측면에서는 연배가 높은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2

00:07:04,123 --> 00:07:16,536

이분들의 경우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말할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43

00:07:16,536 --> 00:07:27,013

이러한 분들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4

00:07:27,013 --> 00:07:33,319

하지만 긍정적인 어떤 감정적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45

00:07:33,319 --> 00:07:49,435

말하기를 할 때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기억을 다시 환기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들이 반복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46

00:07:49,435 --> 00:08:06,886

특히 역사적 사건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말하기를 한 이후에 잠을 자기 어려웠다거나 몸이 아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7

00:08:06,886 --> 00:08:20,333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는 면담자는 구술자가 어떠한 감정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48

00:08:20,333 --> 00:08:28,140

다음으로는 면담자의 듣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9

00:08:28,140 --> 00:08:37,617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타인의 삶, 감정, 의식이 담겨 있게 됩니다.

50

00:08:37,617 --> 00:08:42,054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51

00:08:42,054 --> 00:08:48,561

또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52

00:08:48,561 --> 00:08:59,672

연구자는 구술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53

00:08:59,672 --> 00:09:09,849

한편으로는 고통에 대해서는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듣기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54

00:09:09,849 --> 00:09:17,123

연구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55

00:09:17,123 --> 00:09:34,807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과도 구술 연구를 해본 결과 역사의 경험을 실제로 생생하게 들으며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역사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56

00:09:34,807 --> 00:09:42,148

또 앞서 문자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기록들을 구술 기록으로는 남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57

00:09:42,148 --> 00:09:50,590

그렇게 남겨진 기록은 기존에 서술된 역사와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8

00:09:50,590 --> 00:10:03,803

기존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구술을 통해서 극복하거나 또는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59

00:10:03,803 --> 00:10:19,852

끝으로 구술사가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쓰고 왜곡과 은폐된 사실들을 바로잡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

00:10:19,852 --> 00:10:35,401

특히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학습하게 되겠지만 한국 현대사회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규명되지 않은 또는 왜곡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61

00:10:35,401 --> 00:10:52,518

이러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구술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

00:10:52,518 --> 00:11:03,763

이번 차시에서는 구술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말하기와 듣기라는 구술에서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63

00:11:03,763 --> 00:11:13,706

다음 영상에서는 구술사가 가지는 특징과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2,022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22,022 --> 00:00:31,798

구술사로 새롭게 쓰는 한국 현대사 첫 번째 주 구술사란 무엇일까라는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00:00:31,798 --> 00:00:40,740

지난 영상에서는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4

00:00:40,740 --> 00:00:53,620

이번 영상에서는 구술과 구술사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5

00:00:53,620 --> 00:01:01,361

이번 시간에는 구술, 증언, 인터뷰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6

00:01:01,361 --> 00:01:08,601

구술이 가진 특징을 알고 의의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00:01:08,601 --> 00:01:19,913

이를 위해서 구술, 증언, 인터뷰가 각각 가지는 그 의미와 방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

00:01:19,913 --> 00:01:28,154

그리고 구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

00:01:28,154 --> 00:01:31,558

먼저 증언이란 무엇일까요.

10

00:01:31,558 --> 00:01:40,033

증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 그리고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11

00:01:40,033 --> 00:01:44,838

흔히 법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2

00:01:44,838 --> 00:01:51,177

이 증언은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00:01:51,177 --> 00:02:04,824

증언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건과 사실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목격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또는 목격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00:02:04,824 --> 00:02:10,530

구술에서도 증언이라는 말을 겹쳐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15

00:02:10,530 --> 00:02:26,045

이 경우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씁니다.

16

00:02:26,045 --> 00:02:32,886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인 인터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

00:02:32,886 --> 00:02:42,896

인터뷰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가리킵니다.

18

00:02:42,896 --> 00:02:50,537

그 행위 자체는 구술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19

00:02:50,537 --> 00:03:02,782

그런데 인터뷰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될 때에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과 가지는 회견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20

00:03:02,782 --> 00:03:10,924

이러한 인터뷰의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1

00:03:10,924 --> 00:03:16,429

저 또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22

00:03:16,429 --> 00:03:26,606

이러한 인터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의 경우에는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23

00:03:29,609 --> 00:03:38,585

그렇다면 증언과 인터뷰와 다른 구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4

00:03:38,585 --> 00:03:44,857

구술의 방식 자체는 인터뷰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5

00:03:44,857 --> 00:03:56,936

그리고 증언과 유사하게 주제를 중심으로 구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구하려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 위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6

00:03:56,936 --> 00:04:09,249

하지만 근래의 구술사 연구의 경향은 구술자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 생애사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7

00:04:09,249 --> 00:04:18,191

생애사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최근까지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8

00:04:18,191 --> 00:04:26,599

특히 연령이 높은 경우에 장시간 동안 구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9

00:04:26,599 --> 00:04:38,544

이러한 생애사 연구 속에서 전 생애 속에 구술자가 경험한 특정한 주제나 사건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방식입니다.

30

00:04:38,544 --> 00:04:54,661

그런데 전반적인 생애를 다루는 구술 연구에서는 구술자가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술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1

00:04:54,661 --> 00:05:04,337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이라고 하는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2

00:05:04,337 --> 00:05:14,714

여러분들께서 이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주제별로 구술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3

00:05:14,714 --> 00:05:23,623

이렇게 구술은 증언, 인터뷰와 중복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생애사적으로 구술을 연구한다고 할 때는

34

00:05:23,623 --> 00:05:36,669

기존의 증언이나 인터뷰와는 다르게 장시간 동안 구술자의 전 생애와 기억을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

00:05:36,669 --> 00:05:48,181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구술 자료가 가지는 특징과 구술 자료를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6

00:05:48,181 --> 00:06:07,300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술과 구술 자료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37

00:06:07,300 --> 00:06:14,240

그에 대한 쟁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8

00:06:14,240 --> 00:06:23,983

먼저 첫 번째로 구술 자료가 가지는 특징으로는 구술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39

00:06:23,983 --> 00:06:33,259

구술은 글로 쓰인 언어 즉 문어와는 달리 말로 하는 언어, 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

00:06:33,259 --> 00:06:41,000

우리가 흔히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41

00:06:41,000 --> 00:06:50,109

이 말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2

00:06:50,109 --> 00:06:56,249

또 언어적 행위 외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43

00:06:56,249 --> 00:07:09,028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술성이라고 하는 성격에는 언어적 행위 뿐만이 아니라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44

00:07:09,028 --> 00:07:19,472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이 나타난다거나 감정이 드러나는 모습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45

00:07:19,472 --> 00:07:27,180

이 구술성의 또 다른 측면은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46

00:07:27,180 --> 00:07:33,085

이 상호작용은 구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47

00:07:33,085 --> 00:07:45,131

글과 달리 구술은 대화가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면담자가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구술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8

00:07:45,131 --> 00:07:54,474

제가 구술을 진행할 때도 학생이었을 때와 교수가 된 후에는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49

00:07:54,474 --> 00:08:10,790

또한 이 구술이 어떤 기관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도 구술자는 영향을 받습니다.

50

00:08:10,790 --> 00:08:26,672

이렇게 언어적 행위, 비언어적 행위가 포함되고 상호작용이 중요한 구술성이라는 것을 자료로 남길 때는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1

00:08:26,672 --> 00:08:34,580

구술은 녹취문이라고 하는 형태의 글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52

00:08:34,580 --> 00:08:46,092

이 구술성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는 구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접근할 때 그 상황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53

00:08:46,092 --> 00:08:58,237

그렇지만 이것을 자료로 접근하게 될 때 실제로 구술하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되는 자료는 글로 된 녹취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54

00:08:58,237 --> 00:09:08,414

이러한 녹취문은 당시 현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5

00:09:08,414 --> 00:09:19,525

말, 행동, 몸짓, 어조 등을 글로 재현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6

00:09:19,525 --> 00:09:25,932

구술 자료가 가지는 다음 특징은 주관성과 개인성입니다.

57

00:09:25,932 --> 00:09:32,471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58

00:09:32,471 --> 00:09:47,119

특히 구술 자료가 역사 연구에서 역사의 사료로 쓰일 수 있다고 할 때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사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59

00:09:47,119 --> 00:09:54,427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구술이 주관적인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60

00:09:54,427 --> 00:09:58,364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61

00:09:58,364 --> 00:10:05,004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에서 한계라고만 할 수 있을까,

62

00:10:05,004 --> 00:10:10,610

역사에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63

00:10:10,610 --> 00:10:21,854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문헌 기록과 구술 자료를 비교할 때 생기는 질문인데요.

64

00:10:21,854 --> 00:10:31,530

문헌 기록을 남긴 사람들로만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65

00:10:31,530 --> 00:10:40,640

과거에는 구술 자료가 그러한 문헌 자료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66

00:10:40,640 --> 00:10:57,289

근래에는 주관성과 개인성을 가진 구술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67

00:10:57,289 --> 00:11:10,736

주관성과 개인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사료에 대해서 혹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68

00:11:10,736 --> 00:11:21,013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좌의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9

00:11:21,013 --> 00:11:27,353

다음으로는 구술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서술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70

00:11:27,353 --> 00:11:36,262

이 서술성이라는 것은 구술의 내용이 어떠한 형식을 담고 있는지, 경험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71

00:11:36,262 --> 00:11:43,235

그리고 이 경험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 플롯, 말씨를 사용하는가

72

00:11:43,235 --> 00:11:49,709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73

00:11:49,709 --> 00:11:57,917

구술을 하게 되면 구술자별로 정말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4

00:11:57,917 --> 00:12:06,125

먼저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75

00:12:06,125 --> 00:12:14,366

그에 비해서 특정한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기억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76

00:12:14,366 --> 00:12:19,371

구술자의 성별과 직업에 따른 차이도 매우 큼니다.

77

00:12:19,371 --> 00:12:28,414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경험을 말하는 방식에서 젠더적인 차이를 어느 정도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78

00:12:28,414 --> 00:12:40,659

뿐만 아니라 직업에 있어서도 말을 많이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큼니다.

79

00:12:40,659 --> 00:12:57,777

한편에선 말을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계셔서 하나의 질문에도 아주 많은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묵한 스타일이어서 질문에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80

00:12:57,777 --> 00:13:06,318

이러한 구술자별로 다양한 차이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81

00:13:06,318 --> 00:13:12,992

구술 자료가 가진 특징 중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82

00:13:12,992 --> 00:13:15,761

앞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83

00:13:15,761 --> 00:13:25,237

연구자인 면담자 또는 해석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구술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84

00:13:25,237 --> 00:13:30,209

이때의 연구자는 스스로도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85

00:13:30,209 --> 00:13:44,690

계급, 젠더, 문화, 학문적인 지향에 따라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연구자의 경우에 자신의 시각을 고려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86

00:13:44,690 --> 00:13:51,497

구술자의 입장에서 구술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87

00:13:51,497 --> 00:14:08,714

어떤 경우에는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구술은 수동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구술자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88

00:14:08,714 --> 00:14:16,622

때문에 구술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89

00:14:16,622 --> 00:14:23,762

구술사 연구는 면담자와 구술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작업입니다.

90

00:14:23,762 --> 00:14:30,202

끝으로 구술 자료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1

00:14:30,202 --> 00:14:35,608

앞서 주관성과 개인성에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92

00:14:35,608 --> 00:14:44,783

기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편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93

00:14:44,783 --> 00:14:57,730

하지만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문헌 자료가 신뢰도가 높고 구술 자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는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94

00:14:57,730 --> 00:15:11,543

구술 자료가 가진 진실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적 진실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서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측면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95

00:15:11,543 --> 00:15:22,454

이와 같이 구술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구술 자료에 대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서 본 강좌에서 여러 주제를 살펴볼 때

96

00:15:22,454 --> 00:15:31,196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쓰이는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7

00:15:31,196 --> 00:15:40,172

이번 차시에서는 구술사가 가지는 특징과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8

00:15:40,172 --> 00:15:48,847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2,389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22,389 --> 00:00:29,996

구술사로 새롭게 쓴 한국 현대사 첫 번째 주 구술사란 무엇일까 이어가고 있습니다.

3

00:00:29,996 --> 00:00:36,736

이번 영상에서는 강좌에서 다루게 될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4

00:00:36,736 --> 00:00:54,120

지난 영상에서는 구술이 증언, 인터뷰와는 어떠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술 자료가 가진 특징들과 질문들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5

00:00:54,120 --> 00:01:09,702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강좌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게 될 수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강좌가 진행될지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00:01:09,702 --> 00:01:28,688

또 이 강좌에서 다루는 현대사의 주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고 미리 검색을 해본다거나 언론 보도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등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00:01:28,688 --> 00:01:34,661

이 강좌의 주차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

00:01:34,661 --> 00:01:43,937

이 강좌는 다음 주부터 한국의 구술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

00:01:43,937 --> 00:01:54,180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

00:01:54,180 --> 00:02:03,423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될 것이고요.

11

00:02:03,423 --> 00:02:13,466

3주부터 8주까지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현대사 연구의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2

00:02:13,466 --> 00:02:26,946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제가 실제로 어떤 사건의 당사자와 만나서 구술을 진행한 바 있는 연구 주제들입니다.

13

00:02:26,946 --> 00:02:47,700

이 주제들을 통해서 저의 구술 경험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되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

00:02:47,700 --> 00:03:02,715

9, 10주 동안은 여러분이 실제로 구술사 연구자가 된다고 했을 때 구술사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5

00:03:02,715 --> 00:03:15,061

이 방법론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10주 강좌가 끝난 다음에는 직접 구술을 진행해보는 과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16

00:03:15,061 --> 00:03:21,167

여러분 앞으로 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7

00:03:21,167 --> 00:03:27,740

앞으로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18

00:03:27,740 --> 00:03:38,818

먼저 3주에서 8주 동안 제가 실제로 연구하거나 진행했던 구술 연구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19

00:03:38,818 --> 00:03:43,456

현대사 연구에는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20

00:03:43,456 --> 00:03:58,304

그중에서 특히 구술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구술을 해왔던 연구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1

00:03:58,304 --> 00:04:05,878

먼저 첫 번째는 법적으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22

00:04:05,878 --> 00:04:14,721

한국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이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3

00:04:14,721 --> 00:04:20,560

대표적인 사례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24

00:04:20,560 --> 00:04:38,911

이 5·18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25

00:04:38,911 --> 00:04:50,923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실제로 광주에서 당시에 피해를 겪었던 많은 분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26

00:04:50,923 --> 00:04:58,564

법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은 제주4·3사건입니다.

27

00:04:58,564 --> 00:05:07,407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였습니다.

28

00:05:07,407 --> 00:05:15,448

당시의 한국은 분단과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29

00:05:15,448 --> 00:05:25,591

이때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도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30

00:05:25,591 --> 00:05:41,674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미군정 정부 수립 후 한국 정부에서는 지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마을 전체를 없애버리는 진압을 했었습니다.

31

00:05:41,674 --> 00:05:56,789

당시의 피해 사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진상 규명이 시작되었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2

00:05:59,792 --> 00:06:07,633

우리 수업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사건의 또 한 가지는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33

00:06:07,633 --> 00:06:15,108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4

00:06:15,108 --> 00:06:30,623

이 전쟁이 한반도에는 어떠한 피해를 남겼는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내에서 난민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35

00:06:30,623 --> 00:06:38,197

제가 참여했던 연구 사업 중에는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 연구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36

00:06:38,197 --> 00:06:45,00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7

00:06:45,004 --> 00:06:57,517

월남민이라고 할 때는 38선과 지금의 군사분계선의 북쪽 즉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8

00:06:57,517 --> 00:07:04,791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들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경험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고요.

39

00:07:04,791 --> 00:07:12,098

당시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40

00:07:12,098 --> 00:07:22,475

다음으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41

00:07:22,475 --> 00:07:35,855

2012년에 저의 첫 구술 연구 주제인 개척단 그리고 2022년 가장 최근에 연구한 납북 귀환 어부 피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2

00:07:35,855 --> 00:07:40,359

생소하게 느끼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43

00:07:40,359 --> 00:07:47,700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으니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4

00:07:47,700 --> 00:07:55,975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45

00:07:55,975 --> 00:08:08,354

그다음에 다루게 될 주제는 1980년대로 넘어와서 1980년대에 있었던 여러 방식의 사회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46

00:08:08,354 --> 00:08:19,732

당시의 노동자 이른바 부랑인, 여성 등에 대해서 통제와 탄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

00:08:19,732 --> 00:08:38,184

우리 강좌에서는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지역에 있었던 광부들의 사북항쟁 그리고 80년대의 많은 수용시설 중의 여성 수용시설에 대한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48

00:08:38,184 --> 00:08:51,097

현대사 연구의 주제들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2014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49

00:08:51,097 --> 00:08:56,903

참사가 끝난 후 2015년부터 구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50

00:08:56,903 --> 00:09:05,144

그 결과물은 현재 <<그날을 말하다>>라는 100권의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51

00:09:05,144 --> 00:09:21,327

특히 안산 지역 단원고 희생자들의 부모, 잠수사 그리고 참사가 벌어졌던 섬인 진도 옆의 동거차도 어민들까지 참사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구술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52

00:09:21,327 --> 00:09:29,969

이에 대한 주제들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3

00:09:29,969 --> 00:09:35,708

이번 영상에서는 강좌 전체의 구성과 주제들을 소개했는데요.

54

00:09:35,708 --> 00:09:44,183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술을 과제로 할 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설명하고

55

00:09:44,183 --> 00:09:47,086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56

00:09:47,086 --> 00:09:49,589

수고하셨습니다.

1

00:00:20,020 --> 00:00:22,389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22,389 --> 00:00:30,063

구술사로 새롭게 쓴 한국 현대사 첫 번째 주 구술사란 무엇일까 마지막 수업입니다.

3

00:00:30,063 --> 00:00:42,008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강좌가 끝날 때 해야 하는 과제를 안내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수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4

00:00:42,008 --> 00:00:55,055

지난 영상에서는 강좌가 주차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강좌에서 다루게 될 현대사의 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했습니다.

5

00:00:55,055 --> 00:01:01,628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최종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

00:01:01,628 --> 00:01:09,936

이 최종 과제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구술사 연구 방법론 강의가 있을 텐데요.

7

00:01:09,936 --> 00:01:17,077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면담자가 되어 구술을 진행해보는 것입니다.

8

00:01:17,077 --> 00:01:20,780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9

00:01:20,780 --> 00:01:26,986

그렇다면 누구를 구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10

00:01:26,986 --> 00:01:33,159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이 구술자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11

00:01:33,159 --> 00:01:39,265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서 구술자를 선정하기를 권합니다.

12

00:01:39,265 --> 00:01:44,904

먼저 1970년 이전의 출생자로 하겠습니다.

13

00:01:44,904 --> 00:01:54,781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을 하신 내용들이 많고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00:01:54,781 --> 00:02:03,156

구술자로는 가족도 상관없고 주변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도 괜찮습니다.

15

00:02:03,156 --> 00:02:08,661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도 좋습니다.

16

00:02:08,661 --> 00:02:22,775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분을 구술하면 좋을지, 실제로 본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7

00:02:22,775 --> 00:02:30,950

그렇다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텐데요.

18

00:02:30,950 --> 00:02:39,692

그렇게 구술을 한 결과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과제물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19

00:02:39,692 --> 00:02:49,202

이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사업에서 또는 연구해서 해왔던 관련 서식이 있습니다.

20

00:02:49,202 --> 00:02:51,104

문서 서식인데요.

21

00:02:51,104 --> 00:02:55,608

이러한 문서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22

00:02:55,608 --> 00:03:02,849

여러분들은 구술자를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00:03:02,849 --> 00:03:07,520

녹음을 해야 기록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24

00:03:07,520 --> 00:03:15,962

그래서 녹음을 한 음성 파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녹취록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25

00:03:15,962 --> 00:03:28,274

녹취라고 하는 것은 구술의 구술자와 면담자가 했던 녹음된 음성 파일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6

00:03:28,274 --> 00:03:37,817

글로 옮길 때 여러분들은 전체를 옮기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술을 한 내용 중에서

27

00:03:37,817 --> 00:03:48,661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20여 분 분량의 음성을 녹취로 옮겨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8

00:03:48,661 --> 00:03:52,131

녹취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9

00:03:52,131 --> 00:03:55,134

궁금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30

00:03:55,134 --> 00:04:04,410

이후에 이어지는 연구 방법론 수업에서 그리고 각 주제별 수업에서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

00:04:04,410 --> 00:04:11,818

이에 대한 문서 형식 역시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32

00:04:11,818 --> 00:04:16,756

다음으로는 면담 일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33

00:04:16,756 --> 00:04:25,698

왜 구술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기록입니다.

34

00:04:25,698 --> 00:04:42,348

면담자가 이를 통해서 구술 상황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술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

00:04:42,348 --> 00:04:52,125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수업 들으면서 어떠한 분을 만나서 구술을 해보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36

00:04:52,125 --> 00:05:03,736

그리고 적어도 30분 정도 이상은 구술을 진행해서 구술 내용을 녹취문으로 옮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

00:05:06,739 --> 00:05:09,842

과제 안내까지 드렸는데요.

38

00:05:09,842 --> 00:05:13,646

이번 한 주 동안 수업이 어떠셨나요?

39

00:05:13,646 --> 00:05:25,658

이번 첫 주에서는 각국에서 구술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연구자들은 구술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40

00:05:25,658 --> 00:05:35,902

특히 한국에서는 과거, 경험, 기억, 기록과 같은 개념들이 있었음을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1

00:05:35,902 --> 00:05:41,541

다음으로는 구술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2

00:05:41,541 --> 00:05:50,049

왜 구술이 필요한지, 특히 역사 연구에서 구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43

00:05:50,049 --> 00:06:05,898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또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술사가 어떤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을지를 앞으로 계속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44

00:06:05,898 --> 00:06:19,379

그리고 구술과 구술사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증언, 인터뷰와 비교해보고 구술 자료가 가지는 특징들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45

00:06:19,379 --> 00:06:36,863

이 또한 구술 자료가 가지는 모든 특징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 주제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러한 특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파악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6

00:06:36,863 --> 00:06:47,807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실제로 연구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47

00:06:47,807 --> 00:07:06,959

그러한 강좌의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구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쓰기가 어떻게 가능할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8

00:07:06,959 --> 00:07:11,063

여러분 이번 주 수업을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9

00:07:11,063 --> 00:07:19,172

다음 주 2주차 수업에서는 한국에서의 구술사 연구 흐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